

#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新知見 —“厥陰爲樞, 少陰爲合”을 중심으로—

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內容提要(Abstract)

關於三陰三陽의 開闔樞의 親發現

- 把“厥陰爲樞, 少陰爲合”爲中心 -

這裏主要根據『內經』有關三陰三陽의 開闔樞概念論述來說明厥陰成爲三陰三陽의 樞, 而且把太陽和少陰定爲先天的 開闔, 還有把太陰和陽明定爲後天的 開闔來解釋有關問題, 再來, 把兩個論點合起來, 闡明少陰爲闔, 太陽爲開, 厥陰少陽太陰陽明爲樞.

關鍵詞(Keywords) : 三陰三陽, 開闔樞

## 1. 序論

『素問·陰陽離合論』에서 三陰三陽의 開闔樞理論을 최초로 제시한 이래로, 三陰三陽의 의미, 開闔樞의 의미, 開闔樞냐 關闔樞냐 등의 문제에 대해 역대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근래에 方藥中이 ‘厥陰이 樞이고 少陰이 闔’임을 주장하면서<sup>1)</sup>,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되었다.

論者は『內經』의 관련 내용을 자세히 고찰한 결과, 『內經』에 비록 ‘厥陰이 樞’라는 말은 없지만, 내용상으로 厥陰을 樞로 이해했음을 입증할만한 여러 가지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들 내용을 총괄하여 三陰三陽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밝혔다.

## 2. 『素問·六微旨大論』에 근거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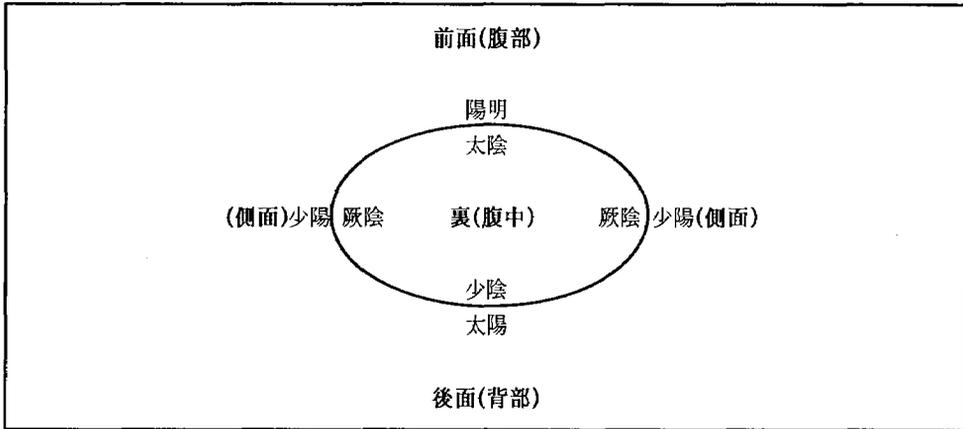
『六微旨大論』에 “寒濕相遘, 燥熱相臨, 風火相值”<sup>2)</sup>라는 구절이 있으니, 이것이 첫 번째 근거이다. 먼저 “寒濕相遘”를 보자. 寒은 太陽이요, 濕은 太陰이니, “寒濕相遘”는 太陽과 太陰이 相合함을 말한 것이다. 太陽은 三陽 中の 開에 속하고 太陰은 三陰 中の 開에 속하니, 곧 太陽과 太陰이 같은 開의 작용을 함으로써 서로 짝이 됨을 알 수 있다.

“燥熱相臨”은, 燥는 陽明이요, 熱은 少陰이니, “燥熱相臨”은 陽明과 少陰이 相合함을 말한 것이다. 陽明은 三陽 中の 闔에 해당하는데, 앞의 “寒濕相遘”의 예에 비추어 보면 少陰은 三陰 中の 闔이어야 한다.

“風火相值”는, 風은 厥陰이요, 火는 少陽이니, 風火相值는 少陽과 厥陰이 相合함을 말한 것이다. 少陽은 三陽 中の 樞에 속하므로, 厥陰은 三陰 中の 樞가 되어야 前例에 부합한다.

1) 王琦 등 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41쪽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244쪽



【그림1】 몸통 部位의 三陰三陽位置

### 3. 『素問·陰陽離合論』에 근거하여

「陰陽離合論」에서는 三陰三陽이 분포하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天覆地載，萬物方生，未出地者，命曰陰處，命曰陰中之陰；則出地者，命曰陰中之陽。”

“聖人南面而立，前曰廣明，後曰太衝，太衝之地，名曰少陰，少陰之上，名曰太陽”

“中身而上，名曰廣明，廣明之下，名曰太陰，太陰之前，名曰陽明”

“厥陰之表，名曰少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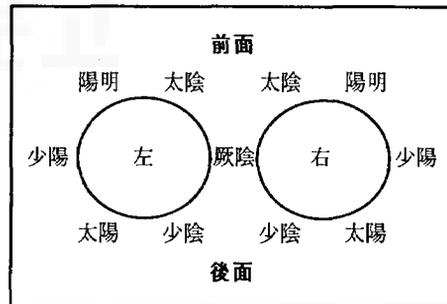
“外者爲陽，內者爲陰，然則中爲陰，其衝在下，名曰太陰”

“太陰之後，名曰少陰”

“少陰之前，名曰厥陰”

이에 대해서는 林鎭錫 教授가 이미 밝혀 놓았는데<sup>3)</sup>, 그는 “少陰之上”，“太陰之前”，“厥陰

之表”의 ‘上’, ‘前’, ‘表’를 모두 ‘出地者’란 말과 결부시켜 이들이 실제로는 신체의 표면을 의미하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前面에서 겉은 陽明, 속은 太陰이며, 뒷면에서 겉은 太陽, 속은 少陰이며, 측면에서 속은 厥陰, 겉은 少陰이다. 이로써 陽明-太陰, 太陽-少陰, 少陽-厥陰의 완전한 표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2】 大腿 부위의 三陰三陽位置

이와 같은 三陰三陽의 표리 배합은 다리에 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대퇴 부위에서 三陰三陽經脈의 분포를 살펴보면(【그림2】 참조), 前面으로 太陰經과 陽明經이 흐르고, 後面으로 少陰經과 太陽經이 흐르며, 안쪽 측면으로는

3) 林鎭錫,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開闔樞, 大韓原典醫學史學會誌 11권 2호, 1998. 15~26쪽

厥陰經이 바깥쪽 측면으로 少陽經이 흐른다. 이 좌우의 그림을 양쪽에서 중심 쪽으로 그대로 밀어서 합하면, 자연스럽게 陰經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陽經은 바깥쪽에 자리하게 되어, 결국 【그림1】과 같이 된다. 이러한 三陰三陽의 분포는 “外者爲陽, 內者爲陰”이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몸통에서 심층부에 있었던 三陰經이 四肢로 나오면서 몸통이 둘로 갈라짐에 따라 體表로 노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少陰, 厥陰, 太陰은 모두 太陽, 少陽, 陽明에 비해서 안쪽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몸통에 나타나 있는 三陰經의 노선은 실제로는 보다 깊은 곳에 위치한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또 足少陰腎經은 현재 經穴圖에서 腹部에 그려져 있지만, 이상의 이론에 따르면 실제로는 足太陽膀胱經의 深部, 즉 척추 안쪽 깊숙한 곳을 따라 흐른다고 보아야 한다. 즉 表裏가 되는 太陽經의 深部로 흐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靈樞·經脈』의 足少陰經 路線에 대한 설명과도 일치한다. 몸통 부위의 經路를 보면 사타구니 안쪽 會陰 부위를 관통하여 腹中으로 들어가 척추를 따라 올라가 腎과 膀胱에 연결되고, 다시 횡격막을 뚫고 흉부로 올라가 肺로 들어가고, 목구멍을 따라 올라가 혀뿌리에 이른다고 하였다.<sup>4)</sup> 결국 少陰이 太陽의 기세에 눌러 뒤쪽 背部로 표출되지 못하고 앞쪽 腹部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그림1】로 돌아가 이를 開闔樞와 결부시켜 보면, 前面의 胸腹部에서는 陽明과 太陰이 하나는 闔이고 하나로 開로써 서로 표리를 이루고 있다. 陽明은 三陽 중의 闔으로서 외부로부터 水穀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며,

太陰은 三陰 중의 開로서 陽明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體內 臟腑로 宣布하는 일을 한다. 後面의 背部에서는 太陽과 少陰이 開와 闔으로 서로 표리를 이루고 있다. 少陰은 三陰 중의 闔으로서 陽氣를 깊숙이 응축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太陽은 少陰에 응축되어 있는 陽氣를 體表로 펼치는 역할을 한다. 側面의 脇肋部에서는 少陽과 厥陰이 각각 陽明(闔)과 太陰(開), 太陰(開)과 少陰(闔)의 사이에 위치하여 開闔을 조절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위치상의 표리배합관계로 따져볼 때, 厥陰을 樞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少陽은 少陰에 凝縮된 陽氣를 촉동시켜 太陽으로 發揚시키며, 厥陰은 太陽에 한껏 펼쳐진 陽氣가 다시 少陰으로 수렴되는 것을 돕는다.

#### 4. 『素問·脈解』에 근거하여

「脈解」篇에서는 陰陽氣의 盛衰에 근거하여, 三陰三陽을 일년 중 여섯 달에 배속하였다. 正月에 太陽, 5월에 陽明, 9월에 少陽, 3월에 厥陰, 7월에 少陰, 11월에 太陰을 배속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拙稿 “『內經』 月令(四時)-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sup>5)</sup>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脈解」篇의 三陰三陽-月 배속을 간략히 그려보면, 【그림3】과 같다. 厥陰을 樞라고 본다면, 太陰과 陽明, 太陽과 少陰은 서로 마주 보면서 각각 開-闔의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고, 厥陰과 少陽은 같은 樞로써 서로 표리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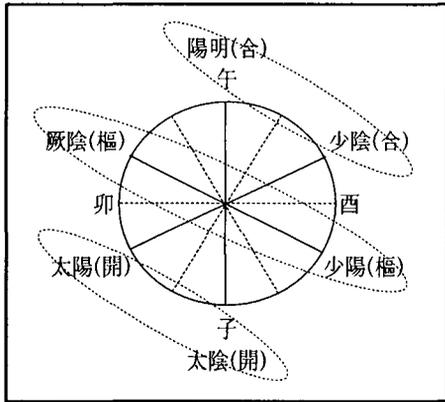
이밖에 少陽을 一陽, 陽明을 二陽, 太陽을 三陽, 厥陰을 一陰, 少陰을 二陰, 太陰을 三陰이라고 하는데, 厥陰을 樞라고 본다면, 一陽-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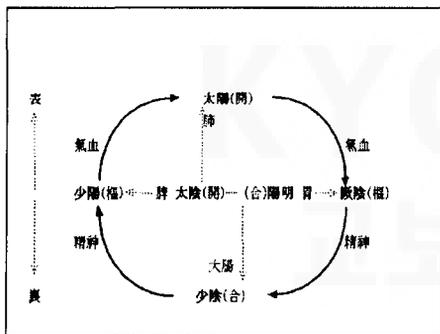
“腎足少陰之脈, 起於小指之下, 邪走足心, 出於然谷之下, 循內踝之後, 別入跟中, 以上踰內, 出屬內廉, 上股內後廉, 貫脊, 屬腎, 絡膀胱. 其直者, 從腎上貫肝膈, 入肺中, 循喉嚨, 挾舌本.”

5)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2권 2호(통권15호), 대한원전의사학회, 1999. 81~85쪽

一陰：樞，二陽-二陰：合，三陽-三陰：開로 써, 三陰三陽의 순서와 開闔樞의 배속에 규칙성이 보인다.



【그림 3】「脈解」篇의 三陰三陽表裏配合



【그림 4】開闔樞圖

### 5. 新知見

인체 생명활동은 크게 두 개의 開闔作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少陰과 太陽 사이의 開闔이고, 다른 하나는 太陰과 陽明 사이의 開闔이다. 첫 번째 開闔은 先天 精氣의 升降出入에 관한 것이므로 先天의 開闔이라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開闔은 後天 水穀

氣血의 升降出入에 관한 것이므로 後天의 開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체의 생명활동은 少陰과 太陽 사이의 升降開闔이 근간이 된다. 少陰은 闔으로 精을 저장하며, 陽氣를 극도로 응축하여 저장한다. 따라서 크기는 작지만 내포하고 陽氣의 힘은 가장 세다. 太陽은 開로서 陽氣를 가장 밖으로 끝까지 펼친다. 따라서 크기는 가장 크지만 陽氣의 세기는 弱하다. 강한 陰氣에 의해 깊숙이 凝縮되어 있는 少陰의 陽氣가 가장 바깥쪽의 太陽으로 펼쳐져 인체 각종 생명활동을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陽氣는 소모되고 새로운 양기가 재생산되는데 이 陽氣는 다시 少陰으로 갈무리된다. 즉 少陰에 응축된 陽氣가 太陽으로 한껏 發揚되고, 다시 太陽에서 少陰으로 陽氣가 응축되는 것이 人體 生命活動의 핵심이다. 결국 太陽-少陰 開闔升降의 正常 여부가 生理와 病理의 관건인 것이다.

이를 傷寒에 비추어 설명해보면, 少陰病은 기본적으로 응축하고 있는 陽氣가 부족한 것이며, 太陽病은 陽氣의 發揚이 잘 안되어 體表의 陽氣가 不足한 것이다. 그런데 少陰의 陽氣가 太陽으로 發揚할 때는 중간에서 陽氣의 發揚을 촉동하는 조절자가 있어야 한다. 少陰 자체가 응축하는 힘이 매우 강하므로, 이를 뚫고 陽氣를 소통시켜 줄 수 있는 기운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少陽이다. 이와 반대로 한껏 發揚된 陽氣를 다시 少陰으로 수렴해서 갈무리하는데도 역시 조절자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厥陰이다.

少陽은 樞로서 少陰에 깊숙이 응축된 陽氣를 일깨워 太陽으로 轉化하도록 촉동한다. 즉 陽氣가 안에서 밖으로 펼쳐지는 과정을 調節한다. 厥陰은 樞로서 太陽에서 少陰으로의 轉化를 調節한다. 太陽에 널리 퍼진 陽氣를 다시 少陰으로 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쓰고 남은 에너지(氣血)를 저장했다가 少陰으로 보내 精으로 저장하도록 돕는 일도 한다.

傷寒의 관점에서 보면, 少陽病은 陽氣의 發揚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즉 내부에 응축된 陽氣는 있으나 發揚이 잘 안 되는 것이다. 少陽病의 대표적인 증상인 寒熱往來는 陽氣의 發揚 여부에 따라 發熱과 惡寒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다. 厥陰病은 陽氣의 收斂과 저장에 문제가 發生하여 속의 陽氣가 모자란 것이다. 厥陰病의 특징인 寒熱錯雜은 陽氣의 수렴 여부에 따라 寒厥과 發熱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다. 少陽病과 厥陰病이 모두 樞의 기능이 失調된 것으로 그 증상도 寒症과 熱症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서로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르다. 少陽病은 陽氣가 發揚이 안 되는 것이고, 厥陰病은 陽氣가 收斂이 안 되는 것이다. 즉 少陽病은 내부에 陽氣는 충분한 상태지만, 厥陰病은 내부의 陽氣가 消盡된 상태이다. 따라서 厥陰病은 少陽病의 寒熱往來에 비해 그 증상이 더 심하여, 厥熱勝復이나 上熱下寒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상은 先天의 開闔을 설명한 것이다.

인체는 先天의 精氣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少陰-太陽의 開闔 자체에서는 항상 생산된 에너지보다는 소모된 에너지보다 많으므로, 소모된 만큼의 精氣를 반드시 體外로부터 보충해야 한다. 그래서 太陰-陽明이라는 後天의 開闔이 필요한 것이다. 陽明은 闔으로서, 水穀을 受納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太陰은 開로서 陽明으로부터 吸收한 氣血을 體內 全身으로 輸布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또한 陽明은 氣를 끌어내리며, 太陰은 氣를 끌어올린다. 陽明에 속하는 胃나 大腸은 모두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降氣를 주관하며, 太陰에 속하는 脾나 肺는 水穀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전신으로 輸布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升氣를 주관한다. 따라서 陽明이 병들면 받아들여서 내려보내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므로, 嘔吐, 飲食不納, 大便不通 등의 증상이 흔히 발생하며, 太陰이 병들면 올라

가야 할 것이 올라가지 못하고, 퍼져야 할 것이 퍼지지 못하므로, 腹痛, 泄瀉, 食欲不振 등의 증상이 흔히 발생한다. 이상은 後天의 開闔을 설명한 것이다.

이제 後天의 開闔이 先天의 開闔에 어떤 방식으로 相合하는지를 살펴보자. 水穀이 胃로 들어가면 淸濁으로 나뉘어, 淸氣는 脾로 흡수된다. 脾로 흡수된 淸氣는 다시 淸濁으로 나뉘는데, 그 중의 淸氣는 직접 폐를 통해 太陽으로 퍼지고, 濁氣는 少陽에 의지하여 太陽에 이르게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胃에 남은 濁氣도 다시 淸氣와 濁氣로 나뉘는데, 그 중의 濁氣는 곧장 大腸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고, 淸氣는 厥陰을 거쳐 필요한 부분은 흡수되고 그 남은 찌꺼기가 체외로 배출된다. 太陰과 陽明은 비록 그 자체가 後天의 開闔에서는 開와 闔으로 작용하지만, 先天의 開闔에 대해서는 오히려 樞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太陰은 少陽과 함께 氣의 升發을 촉진하고, 陽明은 厥陰과 함께 氣의 斂降을 촉진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체의 생명활동은 결국 하나의 開闔樞로 귀결되는데, 少陰이 闔이고, 太陽이 開이며, 少陽과 厥陰, 太陰과 陽明이 樞에 해당한다.

## 參考文獻

1. 王琦 등 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3. 林鎮錫,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開闔樞,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1권 2호, 1998.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5. 丁彰炫, 『內經』月令(四時)-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2권 2호, 대한원전건의사학회, 1999.